이름: 김현욱 학번: 21800201 분반: 02

역대상, 이스라엘의 계보와 다윗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헤브론과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었다.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40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며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집중하면서 읽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존재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알고 또 그 진리를 따라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역시 따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길임을 느끼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에스라,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어쩌면 광야의 생활보다 더 길고 험난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시야로 보니 인간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느헤미아,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지고 느헤미아가 이를 재건하는 사건이 주를 이룬다.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느헤미아가 페르시아를 갔다 온 사이에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관리를 하며 마무리 된다. 우리 사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느헤미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에스더, 뛰어난 미모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되어 에스더의 사촌 오빠와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사실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역사서 중 하나다. 하지만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저마다 다른 방식과 다른 달란트를 이용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에스더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도 그에 사랑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